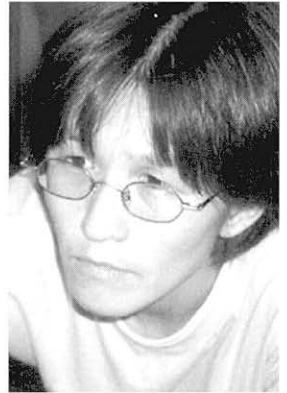


● 노래와 사람

내 남편을 울린 노래

“동지가”

이은진 (꽃다지 전 대표, 노동문화기획자)



노래패 활동과 노동문화운동을 오래 한 나에게서는 7,80년대의 민중가요나 80년대 후반의 투쟁가, 그리고 90년대 따뜻하고 신나는 노래들까지, 사람과 사연이 담기지 않은 노래가 하나도 없다. 이 노래는 이때 이렇게 불렀지, 이 때는 이런 사람들과 함께 했지... 같은 단상이 대부분의 노래와 연결되어 떠오르곤 한다. 특히 음악에 대해 편식을 전혀 않는 나는 민요, 대중가요 뿐 아니라 클래식까지 두루 두루 좋아하는 편인데, 그 와중에 굳이 뭐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못꼽을거야 없겠지만 원체 이곳 저곳에 비슷비슷한 글들을 많이 쓴 터라 똑같은 뭔가를 쓰기도 좀 뭣하고, 이번 10주년 공연을 보면서 느꼈던 수많은 명곡들 중에 잠시 잊고 있던 노래하나를 남편의 입을 빌어 이야기해 볼까한다.

한 사람에게 노래가 가슴에 와 닿을 때는 아마도 어떤 사연과 느낌이 있기 때문이기 쉽상인데, 남편 역시 그러한 노래가 생긴 것이다. 결혼 전 운동이라는 걸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오다가 꽃다지와 알게되고 몇 번 공연을 보면서 노래들이 다 좋다고 사람들이 좋다고 늘 이야기해 오던 남편이었지만 치열한 투쟁이나 운동을 직접 겪어보지 못하였으니 그냥 사람을 좋아한 게 더 컸을 것이다. 그러던 중, 96년 나의 구속 사건은 남편에게 큰 충격이었다. 어디서부터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도 이해하지 못하고 당황해 있던 그를 꽃다지 후배들은 자신들도 당황하고 힘들었을 상황에서도 늘 챙겨줬다. 매일 집에 갈 생각은 않고 눈을 멀뭇멀뭇 뜨고 말없이 앉아 있던 모습을 보고 술 한잔 하자며 같이 밤을 지새워 준 꽃다지 식구들... 그리고 연행된 첫날 연락해서 같이 간 죽마고우와 그의 아내. - 그의 아내는 민가협 간사이다. - 만삭의 몸으로 추운 겨울, 친구의 부름을 마다않고 장안동에 달려와 그 동안 쌓아온 구력으로 깡통을 들고 철문을 두드리며 면회 시켜 달라고 악을 쓰고 발길질을 해댔던 그의 아내에 대한 고마움을 남편과 나는 지금도 잊지 못한다. 남편은 아무런 말도, 행동도 하지 못하며 물끄러미 그들의 행동만 바라보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다가 다 함께 노래를 부르자고 하면서 동지가를 힘차게 불렀다고 한다. 그 때 남편은 꽃다지 공연 때 가끔 들던 그 노래가 바로 이런 노래라는 걸 느꼈다고 한다. “휘몰아치는 거센 바람에도, 부딪쳐오는 거센 억압에도, 우리는 반드시 모이었다. 마주보았다. 살을에는 밤, 고통받는 밤, 차디찬 새벽서리 맞으며 우린 맞섰다. 사랑~~ 영원한 사랑, 변치 않을 동지여, 사랑~~ 영원한 사랑, 너는 나의 동지.”

동지

1. 휘 몰아 치는 거센 바람에도 부딪쳐오는 거센 억압에도 우
2. 세 상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 가먼저 죽는 다 해 - 도 그

리 는 반 드시 모 이 었 - 다 마 주 보 았 다 살
뜻 은 반 드시 이 루 리 - 라 승 리 하 리 라 붕

울 에 는 밤 고 봉 받 는 밤 차 디 찬 새 벽 서 리 맞 으 며
일 되 는 날 해 방 되 는 날 회 망 찬 내 일 위 해 싸 우 며

우 린 맞 섰 다 사 랑 -
우 린 맞 섰 다 투 쟁 -

영 원 한 사 랑 변 치 않 을 동 지 - 여 사
영 원 한 투 쟁 변 치 않 을 동 지 - 여 투

랑 쟁 - 영 원 한 사 랑 너 는 - 나 의 동 지
쟁 - 영 원 한 투 쟁 너 는 - 나 의 동 지

가사말 하나 하나가 가슴에 파고 들면서 목젖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오는 듯한 느낌을 받으며 참으로 노래가 이 사람들이 소중한고 고맙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고, 그리고 남의 일을 자신의 일처럼 함께 하는 이런 친구들을 동지라고 부르는 이유를 알겠다고, 남편은 내가 출소한 날 아주 가볍게 이야기를 했다. 원래 진지함을 어색해 하는 사람이라 가볍게 이야기를 했으나 그가 느꼈을 오랜 마음의 고통과 걱정을 내가 왜 모르겠는가... 그랬다. 나 역시, 동지가는 자주 부르며, 늘 동지에 대한 소중함을 생각해왔지만 이렇듯 사람에게 진한 감동을 줄 수 있는 건 바로 그가 속한 상황과 자신의 마음에서였으리라.

얼마전 인터넷 방송 "푸른살이의 꿈알꿈알"에서 과업중인 경희의료원 동지들을 찾아가 이야기를 나누고 신청곡을 받아 틀어 주고 있던 중에, 그들 역시 힘든 싸움에서 곁에 있는 동지를 생각하며 든든했고, 버틸 수 있었노라고... 동지가를 듣고 싶다고 이야기 했을 때 문득, 6년 전 남편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진정한 우리의 노래, 그래서 십수년간 우리들 입에서 떠나지 않던 노래, "동지가"를 흥얼거려 본다.